



치료·재활·나눔으로 완성하는 따뜻한 의료 문화 확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지역 대표 재활·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개원 이후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와 전문 재활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동행재활요양병원은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넘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치유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가족같은 돌봄과 쾌적한 의료환경

동행재활요양병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가족 같은 돌봄'이다. 의료진과 직원들은 환자를 내 부모, 내 가족처럼 대한다는 철학 아래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자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운영 철학은 병원 곳곳에 반영돼 있다. 환자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기 위한 세심한 관찰과 보호자 상담, 생활 관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병원 규모 역시 지역 요양병원 가운데 손꼽힌다. 지상 12층, 지하 5층, 연면적 1만7천288㎡ 규모에 409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인실부터 6인실까지 다양한 병실을 갖추고 있다. 감염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다제내성균(CRE·VRE)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별도 격리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임종실도 마련했다. VIP 병동은 18실 36병상 규모로 운영되며 편안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175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넓은 지하주차장도 갖춰 보호자들의 방문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넓은 복도와 휴게 공간, 체계적인 환기 시스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문 재활치료로 일상 복귀 지원

동행재활요양병원의 강점은 재활 특화 시스템이다. 병원 11층에 마련된 '하늘재활센터'는 자연 채광과 도심 전망을 활용한 치유형 재활 공간으로 조성됐다. 환자들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재활센터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5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행 재활과 연하 재활, 언어·인지 재활, 운동치료, 도수치료 등 16종 이상의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술 후 회복기 환자와 뇌질환 환자들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간병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환자 1명당 6명의 간병 인력이 순환하며 돌보는 6대1 밀착 간병 체계를 운영해 보호자의 부담을 덜고 있다. 병원 측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간병 인력 확충과 교육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체계적 통합 진료와 전문지식 높은 의료진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양·한방 중심의 전문 재활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들의 빠른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한방 분야에서는 침, 부항, 뜸, 약침, 탕약 등을 병행하며 특히 통증, 불면, 우울, 위장 장애 등 노년기 만성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맞춤형 처방이 이뤄진다. 양방에서는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약물조절,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병행된다. 의료진의 전문성도 동행재활요양병원의 강점으로 꼽힌다. 병원 의료진 대부분이 40대 이하의 젊은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최신 의료기술과 의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진료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

환자 회복·삶의 질 향상 최우선 가치 삼아
보행·언어·인지 재활 등 맞춤 치료 제공

6대1 밀착 간병으로 보호자 부담 완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료기관 자리매김

서며 치료 과정과 회복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내 부모같은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병원 이름처럼 지역사회와 함께 걷는 '동행'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생신잔치와 장수사진 촬영, 산책 프로그램, 손마사지 체험, 봉어빵 데이, 산타 이벤트 등은 환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가정의 달에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와 가족 놀이마당, 노래자랑 등을 개최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함께 웃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병원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했다. 동행재활요양병원 임직원들은 사용하지 않는 의류와 생활용품, 가구 등 약 200점의 물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 광주역점에 전달했다. 또한 지역 돌봄 이웃을 위한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1천833만5천원 상당(현금 500만원, 공진단 20개, 라면 100박스, 김치 500kg)의 후원금과 물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류기준 대표원장은 "요양병원은 단순히 환자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회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연태호기자



류기준 동행재활요양병원 대표원장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만든다”

“요양병원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공간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복귀를 돕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류기준 동행재활요양병원 대표원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병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요양병원을 단순 돌봄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류 원장은 “과거 요양병원이 장기 입원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전문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상태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대 요양병원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 개원 이후 재활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병원 내 재활센터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환자별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뇌졸중과 뇌출혈, 척추손상, 골절,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행훈련과 연하재활, 인지재활, 운동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류 원장은 “재활치료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훈련이 아니라 환자가 다시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의료진과 치료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신뢰'를 꼽았다.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병실 환경과 감염관리, 간병 시스템까지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다제내성균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한 병실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6대1 밀착 간병 시스템을 통해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류 원장은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병원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며 “의료진과 직원 모두가 환자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원장의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다. 류 원장은 “환자에게 병원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는 생활공간”이라며 “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자 중심 의료를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전문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환자의 기능 회복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태호기자

